

# CEO는 사람이다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CEO는 사람이다. 2022년 새해가 밝았다. 그런데 새해 벽두부터 웬 똥단지같이 뻥한 소리나 싶지만 바로 한 해를 시작하는 덕담(德談)이다. 원래 덕담이란 뻥한 것이다. 그걸 전환점에 서서 옷깃을 여민 후 새롭게 함의(含意)를 새겨 보는 게 슬기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불교계의 어른인 종정으로 추대된 직후 성철 큰스님이 세상에 던진 법어(法語)였다. 그는 세속을 훌쩍 뛰어 넘어 시퍼렇게 날이 선 칼같은 참선으로 일생을 보낸 노선승(老禪僧)이었다. 그러기에 오묘무쌍한 말씀을 잔뜩 기대했던 중생(衆生)들로서는 둔기로 머리를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그러나 그 뻥한 법어는 기이하게도 종소리같은 파문을 일으키며 울려 퍼졌었다. 이렇듯 덕담은 뻥하고 당연한 듯 하면서도 의표를 찌른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첫째 CEO는 신(神)이 결코 될 수 없다. 경영에 있어 놀랄만한 성공을 거둔 CEO는 왕왕 영웅으로 추앙 받는다. 그러다가 이윽고 CEO자신은 물론 세상사람들조차 그가 무엇이든 만능일 것이라는 착각에 빠진다. 그래서 CEO는 오만해져서 결국 파탄을 맞기 일쑤다. 카리스마(?)를 지녔다는 황제같은 상당수 오너CEO들이 주로 범하는 죄악이다. 그들이 한때 IMF를 물고 왔고 지금까지도 국민의 피와 땀으로 메꾸어야 할 공적자금을 삼키는 주범중 하나라고 아니할 수 없다. 로마의 멸망도 자신이 신이라고 착각한 황제와 그것을 부추기며 단물을 빨아먹던 가신과 측근들의 타락에서 기인한 것이다.

둘째 CEO는 결코 동물이어서는 안된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고 CEO는 중심인물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탐욕과 욕정만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된다. 무슨 무슨 게이트로 썩은 냄새로 구역질이 난다.

오래 전부터 '사카린 밀수'같은 불법을 자행하면서 상당수 재벌은 권력과의 유착으로 국민을 분노케 했다. 요즘은 몇몇 새파랗게 젊은 사업가들에 의한 권력과의 유착이 국민의 마음을 암담하게 한다. '짐승만도 못한 X들'이 판치는 참담한 세상이기 때문이다.

셋째 CEO는 기계적 메커니즘만을 가동하는 자가 아니다. 1910년대 경영학의 원조라 할 수 있는 테일러(Taylor)나 웨이올(Fayol)의 과학적 관리기법만의 주인공이 아니다. 사람은 결코 생산시스템의 부품이 아니다. CEO역시 그렇다. 희로애락의 주체이며 생각하는 존재다. 더구나 현대는 지식기반 사회인만큼 사람은 기업의 주인이자 고객이다. 알파요 오메가다.

### 존귀한 자아실현을 위하여

사람은 천지간(天地間)에 존재한다. 성(聖)과 속(俗)사이에 존재한다. 신은 아니지만 신을 향하고 동물이지만 동물을 극복하려고 노력한다. 동물적 본능만을 채우는 것으로 행복 지수(Happy Quotient)가 100% 충족되는 게 아니다. 보다 높은 가치실현을 위해 매진해야 한다. 사회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우(Abraham H. Maslow)의 지적은 음미할 만하다. 사람이란 원초적으로 생리적 욕구, 즉 의식주를 위해 쫓긴다. 다음단계로 물리적 위험이나 박탈감으로부터 자유를 꾀한다. 즉 안전을 도모한다. 세번째로 주위사람들과 소속감을 누리면서 사랑을 구한다. 네번째로는 자기능력을 통한 성취에 따라 타인들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으려고 애쓴다. 마지막으로 창조적이며 잠재적인 자아실현을 희구한다. 다시 말하면 존재욕구(Being Need)로부터 존귀한 자아실현 욕구를 지닌 것이 사람이다. 따라서 사람은 성속(聖俗)을 겸비한 존재다. 그러기에 무엇이 되기 전에 사람이 되라는 훈육은 의미심장하다. 결코 오만하지 말고 탐욕에 빠져서는 안된다는 충고다. 더구나 CEO는 한국의 일부 학자와 법조인이나 정치가들과 다르다. 말로만 떼울 수 있는 구경꾼, 옹저버가 될 수 없다. 자신과 종업원과 고객들을 위해 재화라는 가치를 생산공급하며 삶을 누리는 주인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자원도 거의 없는 한국의 CEO들은 그렇게 사회적 대우도 구경꾼 옹저버처럼 받지 못하고 또 제약도 많이 받는 편이다. 그러나 기업들을 역동적으로 움직이면서 CEO들은 오늘도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나라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가는 건강하고 존귀한 CEO들에게 큰 소리로 전하고 싶다.

새해에는 듬뿍 축복과 영광이 있을진저!